

# 간호대학생의 금연중재 의도와 관련된 요인

## Factors Affecting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among Nursing Students

최숙희\*, 김윤희\*\*  
영산대학교 간호학과\*,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Sook-Hee Choi(mind4560@ysu.ac.kr)\*, Yun-Hee Kim(soohappy@pknu.ac.kr)\*\*

###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금연중재 의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B시와 Y시 소재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214명으로,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t-test,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금연중재 의도는 현재흡연 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순상관 관계를 보였다. 금연중재 의도와 관련 있는 요인으로는 금연중재에 대한 자기효능감( $\beta=.634$   $p<.001$ ),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 $\beta=.191$ ,  $p=.002$ ),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beta=.132$ ,  $p=.032$ ) 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금연중재 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64.2%로 나타났다. 즉,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금연중재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이 긍정적일수록 금연중재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금연중재 의도와 관련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금연중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고 본다.

■ 중심어 : | 간호대학생 | 금연 | 중재 | 의도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relating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14 nursing students among two universities in B city and Y cit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data.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by using SPSS 23.0 program. The significant factors relating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were self-efficacy of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 $\beta=.634$   $p<.001$ ), attitude of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 $\beta=.191$ ,  $p=.002$ ), and beliefs of health benefits of smoking cessation ( $\beta=.132$ ,  $p=.032$ ). And these factors explained 65.2% of the variance in nursing students' intention to implement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In conclusion, self-efficacy of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attitude of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and beliefs of health benefits of smoking cess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delivery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se finding can be used to develop evidence-based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training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 keyword : | Nursing Student | Smoking Cessation | Intervention | Intention |

\* 본 연구는 2017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접수일자 : 2017년 10월 10일

수정일자 : 2017년 11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1월 14일

교신저자 : 김윤희, e-mail : soohappy@pknu.ac.kr

## 1. 서론

### 1. 연구 필요성

흡연은 개선이 가능한 주요한 건강 위험요인으로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인 악성종양,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발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1]. 2015년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은 39.3%로, 전년도에 비해 3.8%p 감소하여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12%p 높고 그리스, 터키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흡연관련 조기사망에 의한 질병부담을 측정한 연구에서 금연을 통해 예방 가능한 조기사망이 남녀 각각 60.9%, 17.7%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4], WHO에서는 보건의료인이 흡연자에게 금연중재를 제공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5].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시도하지만 자신의 의지로 담배를 끊을 확률은 1년에 3-5% 정도로 낮는데, 보건의료인이 모든 환자의 의무기록에 흡연여부를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3분 미만의 간단한 금연권고와 같은 금연중재만으로도 금연성공률을 30% 이상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흡연자가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금연에 대한 동기가 높아져서 금연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정신과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흡연자의 84.7%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금연권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러한 흡연자의 70%는 보건의료인의 금연권고가 있으면 금연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인은 흡연하는 환자를 위하여 금연행동요법과 금연약물요법을 포함하는 금연중재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7].

흡연자의 70%가 매년 병원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인을 만난다는 점에서 볼 때, 보건의료인 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환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간호사들이 금연중재를 수행하는 것은 공공보건학적으로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8].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금연중재가 다양한 임상현장과 환자집단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가 수행하는 금연중재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많은 간호사들이

흡연하는 환자에게 근거에 기반한 금연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껴 금연중재 적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실정이다[9]. 이는 학부과정에서 표준화된 금연중재 교육에 충분히 노출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호교육에서 금연중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10], 실제 국내·외 대부분의 간호학과에서는 흡연의 건강폐해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으나 임상현장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중재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11]. 2015년에 수행된 보건의료계열 금연교육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12]에서 의료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파악한 세부 능력별 교육 요구도를 살펴보면 '환자의 금연 추적관찰 및 재흡연 방지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금연 치료보조제 설명', '금연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대학의 정규 교과과정 내 금연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흡연의 건강에 대한 영향'과 '간접흡연의 건강에 대한 영향'에 대한 교육실시율은 50%를 넘었으나 '니코틴 중독의 신체적, 심리적 영향', '니코틴대체요법', '금연중재의 임상적 효과성', '흡연 치료의 임상가이드라인', '치료 적응증 및 금기', '금연유지 여부 사정 및 재흡연 방지 전략'에 대한 교육 실시율은 30%미만으로 학생들의 교육요구도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의 금연중재 수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부과정에서 금연중재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간호전문직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간호대학생이 흡연하는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금연중재를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특정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행위 의도를 그 행위의 수행과 관련된 중요한 예측인자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 의도는 행위에 대한 신념과 태도 및 자기효능감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간호학 전공 학부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의 금연중재 의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금연중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하여 금연중재 의도에 이러한 요

인들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연중재 의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사들의 금연에 대한 믿음과 흡연의 위험 인식정도가 금연중재 의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그리고 네덜란드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금연중재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금연중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 또한 금연중재를 잘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간호사의 금연중재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16]. 우리나라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금연에 대한 태도가 바람직한 경우 금연권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17], 레바논의 의과대학생의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가 금연권고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간호대학생의 금연중재 의도를 포괄적으로 이해함에 있어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간호사를 대상으로 금연에 대한 믿음,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과 금연중재 의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흡연태도 및 금연중재 태도 등의 일부 관련요인에 국한되어 있고 다양한 관련 요인을 고려하여 금연중재 의도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이 금연중재 의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간호학 전공 학부교육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의 금연중재 의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금연중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금연중재 의도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금연중재 의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중재 의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과 금연중재 의도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금연중재 의도와 관련되는 요인을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중재 의도에 관련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시와 Y시에 소재하는 2개 종합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 power 3.1.9프로그램[19]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독립변수를 8개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가 160명으로 제시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거나 회수가 안 된 6부를 제외하고 214부를 최종분석하였다.

### 3. 연구 도구

#### 3.1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은 Sohn 등[11]이 개발한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번역은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간호학과 교수 1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번역된 문항에 대해 금연분야를 연구하는 지역사회 간호학교수 1인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고 간호대학생 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범위는 6~3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에 대한 신념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0이었다.

### 3.2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는 Macnally 등[20]이 개발한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번역은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간호학과 교수 1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번역된 문항에 대해 금연분야를 연구하는 지역사회 간호학 교수 1인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고 간호대학생 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범위는 8~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Macnally 등[19]의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4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8이었다.

### 3.3 금연중재에 대한 자기효능감

금연중재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Sohn 등[11]이 개발하고 송명희 등[14]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범위는 9~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중재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송명희 등[15]의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3이었다.

### 3.4 금연중재 의도

금연중재에 대한 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egaar 등

[21]이 개발하고 Choi 등[1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범위는 3~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중재에 대한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i 등[16]의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6이었다.

## 4.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였으며 연구자가 B시와 Y시에 소재하는 2개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토록 하고 바로 회수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P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1041386-20170912-HR-N-024-03). 대상자 모집 시 본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진행시 익명성이 보장되며 설문내용과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았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23.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중재 의도 차이

(N=214)

특성	구분	n(%)	금연중재 의도	t	p
			M±SD		
성	남학생	33(15.4)	12.00±1.92	-0.692	.493
	여학생	181(84.6)	11.72±2.21		
학년	2학년 이하	60(28.0)	11.56±2.05	1.473	.199
	3학년 이상	154(72.0)	12.06±2.20		
현재흡연 상태	흡연 함	26(12.1)	10.86±2.06	0.120	.027
	흡연 안함	188(87.9)	11.88±2.16		
부모 흡연	부모 흡연 함	87(40.7)	11.64±2.14	0.661	.511
	부모 흡연 안함	127(59.3)	11.80±2.19		
금연교육	금연교육 받음	82(38.3)	11.83±2.06	-0.364	.720
	금연교육 안받음	132(61.7)	11.72±2.24		

표 2. 대상자의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 금연중재 의도 정도 (N=214)

변인	M±SD	Min-Max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23.27±3.34	10-30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	31.79±5.20	16-40
금연중재에 대한 자기효능감	34.34±6.49	17-45
금연중재 의도	11.76±2.17	6-15

표 3. 대상자의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 금연중재 의도간의 상관관계 (N=214)

구분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	금연중재에 대한 자기효능감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1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	.629(<.001)	1	
금연중재에 대한 자기효능감	.437(<.001)	.632(<.001)	1
금연중재 의도	.452(<.001)	.631(<.001)	.784(<.001)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금연중재 의도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중재 의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금연중재 의도간의 관련성은 Pearson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금연중재 의도와 관련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 214명 중 성별은 남학생 15.4%(33명), 여학생 84.6%(181명)이었고, 2학년 이하는 28.0%(60명), 3학년 이상 72.0%(154명)로 나타났다. 본인이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는 12.1%(26명), 부모님이 흡연하는 경우는 40.7%(87명),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38.3%(82명),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61.7%(132명)로 나타났다[표 1].

#### 2. 대상자의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 금연중재 의도 정도

대상자의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은 최소 10점부터 최대 3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은 23.27±3.34점이었다.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는 최소 16점부터 최대 4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은 31.79±5.20점이었다. 금연중재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최소 17점부터 최대 45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은 34.34±6.49점이었다. 금연중재 의도는 최소 6점부터 최대 15점까지로 나타났고 평균은 11.76±2.17점이었다[표 2].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중재 의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중재 의도는 현재 흡연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 금연중재 의도는 10.86±2.06점으로 현재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의 11.88±2.16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t=0.120, p=.027). 성별, 학년, 부모흡연 및 금연교육 여부에 따라서는 금연중재 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 4. 대상자의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 금연중재 의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금연중재 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은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r=.452, p<.001),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r=.631, p<.001), 금연중재에 대한 자기효능감(r=.784, p<.001)으로,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 및 자기

표 4. 대상자의 금연중재 의도와 관련되는 요인

(N=214)

구분	B	SE	$\beta$	t	p	Tolerance	VIF
상수	1,470	0,758		2,122	.041		
현재 흡연 상태*	0,294	0,275	.044	1,068	.287	.972	1,029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0,069	0,030	.132	2,514	.032	.596	1,677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	0,079	0,026	.191	3,093	.002	.443	2,258
금연중재에 대한 자기효능감	0,212	0,018	.634	11,917	<.001	.594	1,682

Adj. R<sup>2</sup> =0.642 F=96.427 p<.001 (Durbin-Watson 2.221)

\* 가변수 (1=흡연 안함)

효능감이 긍정적일수록 금연중재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 5. 대상자의 금연중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금연중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일반적 특성 중 금연중재 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현재흡연상태와, 금연중재 의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명목변수는 가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회귀식의 모든 가정을 충족하였다. 잔차의 산포도를 분석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0을 중심으로 균등하게 흩어져 있어 회귀식의 선형성과 등분산성의 가정을 충족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2로 비교적 2에 가까워 오차항의 독립성 및 자기상관에 문제가 없었다.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12-.78로 나타났고, 공차관계는 0.44-0.97로 모두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도 1.02-2.58로 모두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96.427, p<.001), 금연중재에 대한 자기효능감( $\beta$ =.634, p<.001),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 $\beta$ =.191, p=.002),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beta$ =.132, p=.032) 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금연중재 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64.2%로 나타났다[표 4].

##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금연중재 의도와 관련된 요

인을 파악함으로써 금연중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12.1%로, 전국 411개 대학 및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 700명을 층화표본방식으로 추출하여 도출된 전체 대학생의 현재흡연율 20.4%보다 낮은 수준이었다[22].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 중 84.6%가 여학생이고 의료인을 준비하는 전공 특성으로 인해 현재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북아일랜드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본 연구와 여학생 대상자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흡연율이 24.1%로 본 연구의 흡연율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23], 이는 서양이 우리나라보다 의료인의 흡연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허용적인 문화적인 배경 때문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은 30점 만점에 평균 23.27±3.34점,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는 40점 만점에 평균 31.79±5.20점으로, 간호대학생에게 동일한 도구를 적용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과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가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금연중재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45점 만점에 평균 34.34±6.49점으로,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중재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한 연구에서도[11]에서도 금연중재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평균 34.05±5.10으로 나와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금연중재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금연중재 의도는 15점 만점에 평균 11.76±2.17점으로,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4]의 금연중재 의도 11.05±2.37점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흡연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는 정신과의 특성이 정신과간호사의 금연중재 의도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단변량 분석에서 흡연을 하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흡연을 하지 않는 간호대학생보다 금연중재 의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흡연 여부가 금연권고를 하는 태도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17]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비흡연 간호대학생의 26%가 흡연자에게 금연중재를 제공한 반면, 흡연 간호대학생은 8%만이 금연중재를 제공하고[24], 흡연하는 간호대학생일수록 간호사가 비흡연자로서 환자에게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비흡연 간호대학생에 비하여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나[23],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흡연하지 않는 간호사가 흡연하는 간호사에 비하여 흡연자에 대한 간호사의 금연중재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실제 금연중재를 더 많이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25], 간호대학생들이 스스로 비흡연자가 됨으로써 환자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 환자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도록 금연중재 교육프로그램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금연중재 의도와 관련 있는 요인을 다변량 분석한 결과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이 금연중재 의도의 관련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금연에 대한 건강의 이득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금연중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흡연의 부정적 측면보다 흡연의 이득적 측면을 더 많이 인식하는 간호대학생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돕는 간호전문직 책임감을 덜 느끼고[26], 흡연의 위험을 더 많이 인식하는 간호사의 금연중재 의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여[15],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금연중재를 준수하는 간호사와 그렇지 않은 간호사를 비교했을 때 흡연의 위험인식 정도에 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20]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특정 행위의 결과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행위에 대한 태도와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12], 간호대학생들이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을 내재화하여 흡연자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간호전문직 역할의 사회화에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요구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금연중재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과대학생의 금연상담에 대한 태도가 금연권고 의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18],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가 금연중재 수행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선행연구들[16][27]과 일치하였다. 또한 이란의 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금연중재 태도가 좋을수록 금연중재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28].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간호대학생들에게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흡연하는 환자에게 금연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의 금연중재가 환자의 금연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임상적 효과성과 이러한 간호사의 금연중재가 비용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금연중재 교육프로그램에 포함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금연중재 의도에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제일 큰 요인은 금연중재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금연 중재 제공을 잘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의 금연중재 의도가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29][30]. 금연중재를 제공하는데 있어 장애물이 되는 것으로 시간부족 및 기술부족과 같은 실무적 요인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는 금연중재에 대한 낮은 자기효능감이 보고됨에 따라 금연중재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전략이 요구되어진다[25]. 선행연구[11]에서 간호대학생에게 건강사정시 약 15분간 간단한 금연중재 기술을 적용하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금연중재 교육 후 금연중재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금연중재 프로토콜과 시뮬레이션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하여 금연상담을 실습할 수 있는 금연중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금연중재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여 간호대학생의 금연중재 의도를 강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편의 표집하여 횡단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할 수 없으며,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함에 있어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주관적 규범을 고려하지 못하여 간호대학생의 금연중재 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의 금연중재 의도와 관련된 요인을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의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간호학 전공 학부교육과정에서 부합하는 금연중재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금연중재 의도와 관련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금연중재 의도와 관련 있는 요인은 금연중재에 대한 자기효능감,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 및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64.2%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금연중재 의도와 관련 있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요구도는 높으나 교육실시율이 낮은 영역중심으로 근거에 기반한 효과적인 금연중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금연중재 의도 강화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참 고 문 헌

- [1] 통계청, “2016년 사망원인통계자료,” Available from <http://www.kostat.go.kr>
- [2] 보건복지부, “2015년 제6기 3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8&CONT\\_SEQ=3350](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8&CONT_SEQ=3350)

75

- [3] OECD, “Health Statistics 2014,” Available from <http://www.oecd.org/health/health-date.htm>
- [4] S. J. Yoon, B. M. Ha, J. W. Kang, and H. C. Chang, “Estimation of attributable burden due to premature death from smoking in Korea,” *Kore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Vol.34, No.3, pp.191-199, 2001.
- [5] WHO, “WHO urges health professionals to engage in tobacco control,” Available from <http://www.who.int/mediacentre/news/releases/2005/pr22/en/>
- [6] Tobacco and T. C. P. G. T.,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reating tobacco use and dependence: 2008 update: a US public health service report,”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Vol.35, No.2, pp.158-176, 2008.
- [7] 김수옥, “정신질환자의 흡연지식, 흡연태도 및 금연의도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6권, 제1호, pp.51-58, 2007.
- [8] M. C. Fiore, W. C. Bailey, S. J. Cohen, S. F. Dorfman, M. G. Goldstein, E. R. Gritz, and R. E. Mecklenburg, *Treating tobacco use and dependence: clinical practice guideline*, Rockville, MD: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
- [9] V. H. Rice and L. F. Stead, “Nursing interventions for smoking cessation,” *Cochrane Database Systematic Reviews* 2008, Issue.1, Art. No.CD001188.
- [10] WHO Tobacco Free Initiative, “The role of health professionals in tobacco control,” Available from [http://www.who.int/iris/bitstream/10665/43219/1/9241593202\\_eng.pdf](http://www.who.int/iris/bitstream/10665/43219/1/9241593202_eng.pdf)
- [11] M. Sohn, Y. M. Ahn, H. M. Park, and M. J. Lee, “Simulation-based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education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 Vol.32, No.8, pp.868-872, 2012.
- [1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의료계열 금연교육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 [13] I. Ajze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50, No.2, pp.179-211, 1991.
- [14] 송명희, 김윤희, "정신과 병원 간호사의 금연중재 의도 영향요인," *한국자료분석학회지*, 제19권, 제3호, pp.1585-1597, 2017.
- [15] E. S. Smit, H. Vries, and C. Hoving, "Determinants of practice nurses' intention to implement a new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the importance of attitude and innovation characteristic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69, No.12, pp.2665-2674, 2013.
- [16] S. H. Choi and Y. H. Kim, "Factors affecting Korean registered nurses' intention to implement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Osong Public Health and Research Perspectives*, Vol.7, No.1, pp.63-70, 2016.
- [17] 오효숙, "간호학생의 흡연지식 및 태도, 금연권고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2호, pp.365-374, 2013.
- [18] H. Jradi, M. E. Wewers, P. P. Pirie, P. F. Binkley, and A. K. Ferketich, "Lebanese medical students' intention to deliver smoking cessation advice," *Journal of Epidemiology and Global Health*, Vol.5, No.2, pp.117-123, 2015.
- [19]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nd A. Buchner,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No.2, pp.175-191, 2007.
- [20] L. McNally, A. Oyefeso, J. Annan, K. Perryman, R. Bioor, and S. Freeman, "A survey of staff attitudes to smoking-related policy and intervention in psychiatric and general health care settings," *Journal of Public Health*, Vol.28, No.3, pp.192-196, 2006.
- [21] D. Segaar, C. Bolman, M. C. Willemsen, and H. de Vries, "Nurse adherence to a minimal-contact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on cardiac wards," *Archives in Nursing & Health*, Vol.30, No.4, pp.429-444, 2007.
- [22] 김영복, "건강캠퍼스 구축을 위한 건강증진대학사업의 필수영역 및 추진전략,"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2권, 제4호, pp.25-35, 2015.
- [23] T. V. McCann, E. Clark, and K. Rowe,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s smoking health promotion," *Nursing & Health Sciences*, Vol.7, No.3, pp.164-174, 2005.
- [24] K. Jenkins and K. Ahijevych, "Nursing students' beliefs about smoking, their own smoking behaviors, and use of professional tobacco treatment intervention," *Applied Nursing Research*, Vol.16, No.3, pp.164-172, 2003.
- [25] L. Sarna, S. A. Bialous, V. H. Rice, and M. E. Wewers, "Promoting tobacco dependence treatment in nursing education," *Drug and Alcohol Review*, Vol.28, No.5, pp.507-516, 2009.
- [26] B. K. Lenz, "Beliefs, knowledge,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regarding tobacco cessation,"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Vol.35, No.6, 2008.
- [27] D. de Ruijter, E. S. Smit, H. de Vries, and C. Hoving, "Dutch practice nurses' adherence to evidence-based smoking cessation treatment guidelines," *Family Practice*, Vol.36, No.3, pp.121-128, 2017.
- [28] S. M. Razavi, B. Zolfaghari, M. E. Doost, and B. Tahani, "Attitude and practices among dentists and senior dental students in iran toward tobacco cessation as an effort to prevent

oral cancer,”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Vol.16, No.1, pp.333-338, 2015.

[29] R. Wetta-Hall, E. Ablah, L. M. Frazier, C. A. Molgaard, M. Berry, and M. J. Good, “Factors influencing nurses’ smoking cessation assessment and counseling practices,” Journal of Addictions Nursing, Vol.16, No.3, pp.131-135, 2005.

[30] B. W. Applegate, C. E. Sheffer, K. M. Crews, T. J. Payne, and P. O. Smith, “A survey of tobacco related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urs of primary care providers in Mississippi,” Journal of Evaluation in Clinical Practice, Vol.14, No.4, pp.537-544, 2008.

#### 저 자 소 개

최 숙 희(Sook-Hee Choi)

정회원



- 2010년 8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영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정신건강, 정신간호

김 윤 희(Yun-Hee Kim)

정회원



- 2007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금연, 건강증진, 지역사회간호